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우리나라의 입장 그리고

1. UNCED회의 개최의 배경과 의의

이번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 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현재, 여러 측면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지구의 미래를 논의해 보는 매우 중대한 회의이다.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 소장인 레스터 R 브라운은 “어떤 기념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지구의 황폐화 과정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같은 노력이 성공할 희망은 냉전체제의 붕괴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동·서간 이념분쟁이 사라짐에 따라, 정치지도자들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환경 위협에 대처하는데 집중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류 모두가 부딪히게 될 실제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기회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고 이번 개최되는 UNCED회의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년 전(1972년)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인간환경회의는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었는데, 이번에 열리게 되는 브라질 환경회의에서는 <우리의 손으로(In Our Hands)>라는 슬로건이 등장한다.

즉, 20년 전에는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라는 의미였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더욱 긴박하게 악화되어 우리의 손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년 전 회의에는 113개국 대표가 참여했었지만, 이번 회의에는 세계 100여개국 국가

원수를 포함한 160여개국 국가대표와 1000여개 비정부(NGO)환경 및 사회단체, 그리고 수천명의 언론인과 학자, 전문가, 기업가 등을 포함하여 약 3만여명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는 20년 전 회의 때와 같이,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구헌장(Earth Charter), 의제 21(Agenda 21) 등의 상징적인 것들이 채택 될 것이며, 기후변화 방지와 생물 다양성 보존관련 협약 등의 구체적인 측면도 체결 되겠는데, 여기에는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 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환경문제에 따른 국제분쟁의 불씨가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2. UNCED회의 초점

<지구헌장>과 <의제 21>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당장 구속력을 갖고 산업구조 및 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끼칠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은 개발도상국가에 심각한 문제로 표출될 것이다.

(1) 기후변화 협약의 문제점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탄소이다. 자료에 의하면, 1988년 UN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 280ppm이던 대기중의 탄산가스 농도는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 벌목 등으로 90년 현재 350ppm 수준에 이르렀으며, 서기 2030년이면 산업혁명 이전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라고 한다.

의 중요성과

이렇게 될 경우, 그때의 지구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보다 1.5~4.5°C가 되며, 해수면은 20~140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 채택과 관련하여 그동안 5차례의 정부간 회의가 열렸는데 최종회의는 오는 4월 열릴 예정이고, 현재 진행중인 기후변화 협약 협상에서 EC제국과 일본은 탄산가스 배출량을 서기 2000년 까지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자는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에 미국은 자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감안, 구체적 감축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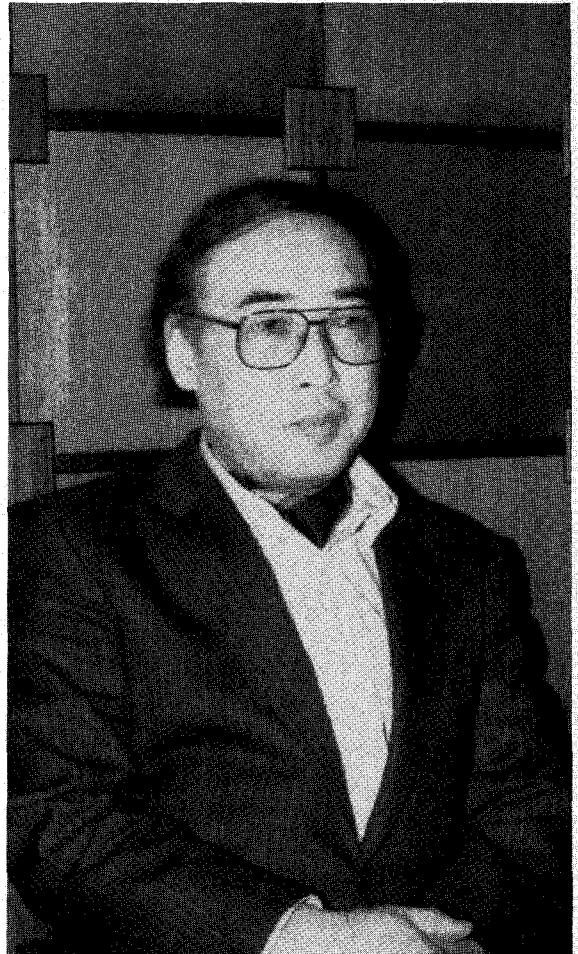
한편,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해수면 상승으로 수물위기에 처할 군소 도서국가(AOSIS)들은 매우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반면에, 석유수출국가(OPEC) 회원국들은 화석연료 감축에 따른 기름값 하락과 수입의 감소 때문에 구체적 감축 일정에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2) 생물다양성 협약의 문제점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2만5천여종의 식물과 1천여종의 척추동물이 멸종 위기에 있으며 앞으로 20년 내에 50만종 내지 1백만종의 생물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근거와 이번 브라질 회의의 중요 문제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끌어 낸 것은, 얼마 전 아마존 유역과 보르네오 등의 열대삼림이 벌채, 도로건설, 개간 등으로 매년 7만6천km²씩 사라지는데 이때 함께 없어지는 생물이 하루에 1백여 종이 넘었던 사실에 있다.

처음,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협상은 생물다



어떤 기념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지구의 황폐화 과정을 역전시킬 수 있다. 동·서간 이념분쟁이 사라짐에 따라, 정치지도자들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환경 위협에 대처하는데 집중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류 모두가 부딪히게 될 실제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기회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

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의 의미와 책임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가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각국이 유전공학의 발달로 각종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서 생물다양성 자체를 새로운 형태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이 또한 유전공학 기술이전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상반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열대림을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은 자국 영토 내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신들의 자원으로 간주해,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는 사용료를 낼 것과 유전공학으로 제조된 새로운 유전공학 물질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접근과 유전공학 기술 및 새로운 물질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주장하는 선진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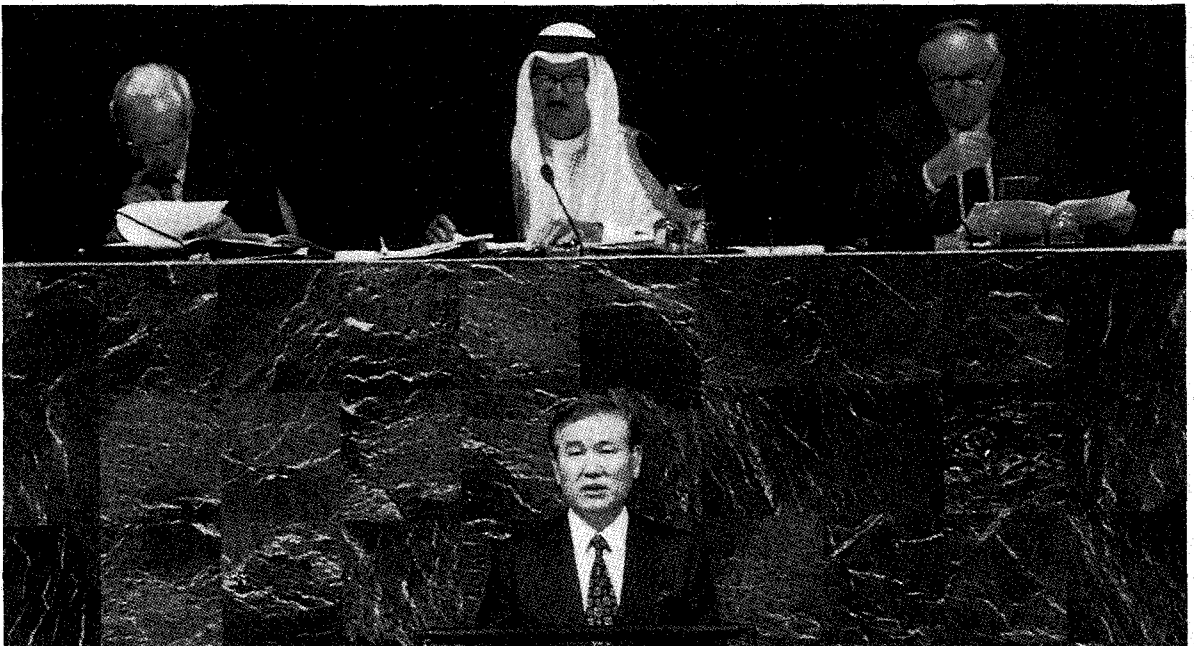
이밖에 이번 브라질의 UNCED회의에서는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채택될 예정인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오염과 보호문제 그리고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자망 어업은 전면 금지되는데 <장 및 셀 꾸스뜨> 같은 학자는 “유자망 어업의 금지령은 지속 가능한 어업행위와 관련된 큰 문제점 중에서 한 요소일 뿐이다. 각국은 자신들이 행하고 지원하고 허용하는 어업행위가 자기들 수역에서 행해져도 좋은지? 그 행위의 가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어종이 재생산되는 동안 긴 그물을 사용하여 닥치는 대로 잡는 상업적 어업을 말한다. 각국은 또한 전세계의 대양 중에서 적어도 한 곳을 어업이 금지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그곳에서는 어떤 인간활동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3. UNCED회의와 우리나라의 입장

즉,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회의의 결과는 선진공업국과 제3세계 국가 모두에게 고질화 된 빈곤문제 해결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 수립 등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정치·경제·사회 등의 제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번 회의의 논제와 같이 강대국가 즉,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회의에는 더더욱 개발도상국가 대표의 입지(발언권 등)는 별볼일 수 밖에 없으며, 장외 로비 활동에서도 항상 뒷편에 서서 강대국가 대표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상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 공업국과 제3세계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쪽도 일차적인 이해를 같이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자칫 양쪽 중심의 논의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특수성에 따른 환경보호와 경제의 정당한 개발권 마저, 침해당하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농산물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처럼 이번 회의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고 불릴 정도로 그 경제적 충격이 장기적이고 엄청날 것이다.

첫째, 선진국은 환경적으로 유해한 상품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며, 둘째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의해서도 환경적으로 유해한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교역이 규제되거나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이번 유엔환경개발회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나 기업만의 손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손실이 된다.

4. UNCED회의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UN에서는 브라질 회의에 각국의 정상들과 정부대표단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의 협조 없이는 지구 환경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과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 취지에서 국내 환경관련 단체들이 한 자

리에 모였었다. 정확하게는 금년, 1월 중순 부터 몇몇 환경인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별로 모임을 추진해 왔다. 필자도 2월 초,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최열 의장과 YMCA 그릴에서 만나, 공동보조를 구체적으로 의논했다.

그리고 마침 지난 해 말, UNEP 글로벌 500 한국위원회의 모임에서 이번의 UNCED회의에 관한 우리(글로벌 500 한국위원)의 입장을 논의한 적이 있어 그에 관해 설명했더니, 이미 최열 의장이 그 중 몇 분을 만나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하고, 권숙표박사도 이 취지에 찬성해, 한국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음을 알려 주었다.

즉, 그동안 환경보호라는 大前提에서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실행의 방법과 목소리의 차이로 개별 행동을 하여 왔던, 국내 환경문제 민간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된 것이다.

따라서 필자도 이 모임(유엔환경개발회의한국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원회 구성, 활동 방향, 대표단 선정 등의 일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상호 교류에 조금 거리감을 느꼈던, 환경문제 원로 학자와 소장파 교수 그리고 사회 및 법인 단체와 반공해단체 간의 교류를 위해 애썼다.

5. UNCED회의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요즘, 환경계에서는 두, 서너 사람 이상만 모이면 UNCED회의에 관한 이야기가 기본 화제가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많은 환경인들이 UNCED회의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환경인이자라면 마땅히 그 회의에 참가해야 하는 것 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그 언젠가? 여름 바캉스가 대유행이 있을때(그때 마침 수영장에서 옴은 아플로 눈병이 번졌다.) 그 축에 들어가야 문화인(?)으로 착각해, 멀쩡한 눈에 안대를 하고 다니던 때와 같이, 6월의 브라질회의에 다녀 와야 저명한(?) 환경인으로 착각될까 보아 겁난다.

각설하고, 솔직히 말해서 “6월 브라질 회의, 6월 브라질 회의”라고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회의에 가서 할 수 있는 주장과 그럴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국제회의의 속성이랄까? 그것은 이미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국제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국제회의이다. 그리고 주최국의 연출에 따라, 그리고 강대국가의 입김이라는 감독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고 가결되는 것이 국제회의의 통례다.

특히, 이번 회의의 논제와 같이 강대국가 즉,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회의에는 더더욱 개발도상국가 대표의 입지(발언권 등)는 별볼일 수 밖에 없으며, 장외로비 활동에서도 항상 뒷켠에 서서 강대국가 대표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상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이라는 직접 영향권인 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이번 회의의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오존층 소멸 물질인 CFCs 화학물질을 아시아 제국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는 국가로서 그리고 內貧外富한 처지로 서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이며, 또 말할 주장이 있다면 다손 치더라도 그럴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부회의와 NGO 회의에서 각각 몇 분의 1회 발언권이 주어진다. 그것도 문제의 핵심을 도출해 내는 제안이나 주장의 성격이 아닌, 상투적인 발언의 한계에 머무를 것이며, 흘러 가는 大勢에 순응하는 그런 인사치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것이, 이번 회의에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국무총리가 참석하느냐? 아니면, 환경처 장관이 잠시 갈다 오느냐? 하는 것도 아직 미정인데,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의 대표가 누구냐?의 수준에 따라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이다.

즉, 회의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어차피(?) 강대국들이 펼치는 국제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하는데, 발언이고 주장이고 애써 따질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NGO 대표의 참여도 그렇다. 처음 공해추방운동연합측이 제시한 참가단 명단을 보았을 때, 광광을 가자는 것인지? 참가했다는데 의의를 두자는 것인지? 모를 면면이어서, 필자는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우선, 참가자의 기준을 설정하자고 제의했다. 꼭 가야할 사람을 뽑자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발언은 못할 망정, 호텔 복도에서 마주치는 외국 참가자와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국제회의의 감각과 영어실력 그리고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통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환경문제의 국제분쟁화가 분명하게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을 위한 환경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국익을 분명하게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표와 수행원의 참가 비용은 전액 한국위원회에서 부담하고(각종 수익사업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자비의 읍저버 자격으로 보내자고 제의해, 사무국에서는 다시 회의 참가자를 선정했다.

하여간, 환경사상 최대의 이슈가 될 이번 회의는 강대국가와 개발도상국가간의 첨예한 대결장이 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 무엇에 앞서, 국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그런 대표를 보내, 비록 강대국이 마련한 국제 드라마의 자리일 망정 최선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필자도 이번 UNCED회의에 참가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 지구환경보호 문제와 환경문제에 따른 국가간의 분쟁 조짐 등에 관해 논의하고 싶었으나, 브라질 회의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국내 환경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그때가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전, 후라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

(筆者: 本會顧問/UNEP 글로벌 500委員)